

‘오월 시인’과 ‘공대생 시인’ 색다른 시세계 깊은 울림

새 시집 펴낸 김준태·최류빈 시인

김 시인, 평화·인권·통일 노래

수록 시들 번역돼 일본서 소개

최 시인, 언어유희 등 개성적 표현



김준태 시인



최류빈 시인

광주에서 활동하는 원로시인과 신예시인이 나란히 시집을 발간했다. 주제의식과 시 쓰는 기법, 스타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색깔이 다른 두 시인의 작품은 독자들에게 시집을 읽는 기쁨과 맛을 선사한다. 주인공은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의 김준태 시인과 ‘공대생 시인’으로 알려진 최류빈 시인. 이들은 최근 각각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 (도서출판), ‘장미 씨, 정오에 피어줄 수 있나요’ (포엠포엠)를 펴냈다.

김준태 시인은 그동안 통일과 광주, 역사 등을 주제로 생명에 대한 사랑과 화평을 특유의 굵직한 톤으로 노래해왔다. 반면 지난해 시 전문지 ‘포엠포엠’으로 등단한 최류빈 시인은 언어의 유희를 기반으로 한 개성적인 작품을 써왔다.

“평화통일로 가는 물꼬를 탄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때 발간된 시집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작품집 발간일이 5월 18일이라는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 같아요.”

1948년 8·15 해방공간에서 태어난 김준태 시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징용과 징병으로 일제가 자행한 전쟁터로 끌려간 선대의 비극적 이력을 갖고 있다. 더욱이 김 시인 또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5·18광주항쟁을 체험했던 터라 통일과 민주화, 인권 등과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한 감수성이 날카롭다.

특히 그는 80년 당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에 게재해 5·18학살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런 그의 시적 지향은 창작관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시인은// 꽃을 줌으로/ 만드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총을 쏘아/ 만드는 사람”(‘시인-2. 총을 쏘아’)으로 규정한다.



이번 시집의 제목 ‘쌍둥이 할아버지’도 시인이 추구했던 세계와 무관치 않다. 둘째 아들이 낳은 쌍둥이 손자를 보면서 남과 북의 통일을 희원하는 시인의 바람이 담겨 있다.

“한 눈을 업어주니 또 한 눈이/ 자기도 업어주라고 운다/ 그래, 애라 모르겠다! 두 눈을 같이 업어주니/ 두 눈이 같이 기분 좋아라 웃는다/ 남과 북도 그랬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번 시집이 의미가 있는 것은 최근에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 ‘광주에 바치는 노래’, ‘자정을 넘어서, 새벽에 쓴 시’가 일본의 주오대학에서 발행하는 종합 계간지에 번역돼 소개됐다는 점이다. 주오대가 1949년부터 발행해온 ‘주오효론’(중앙평론)은 최근 303호(2018년 5월호)에서 김준태 시인을 기획특집으로 꾸렸다.

이번 계간지에 수록된 김준태 시인의 시는 김정

훈 전남과학대 교수가 번역을 했다. 문병란 시인의 ‘직녀에게’를 일본어로 번역하기도 했던 김 교수가 이번에도 김 시인의 작품과 지난해 주오대에서 강연한 전문 내용도 번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태 시인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분단’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 생명 존중, 평화, 하나됨을 향한 방향으로 바꿈과 변화의 의미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남대 생물공학과 4학년 재학생인 신예 최류빈 시인의 작품집은 실험적이며 개성적인 작품을 담고 있다. 미학적 열정을 새로운 감수성과 낯설게 하기 기법으로 형상화한 시는 향후 펼쳐질 시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올해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연소로 단독 선정될 만큼 그의 시적 성취는 만만치 않다. 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펼쳐내는 작품 세계는 상정의 발견, 언어의 유희 측면에서 신선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어지럽게 부유하는 장미의 꽃말 단 한 문장의 암호 잃어 출구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벽에 가시로 피었다 간 장미 붉은 벽돌담 횡대 위에서 한 사람 이 남긴 성흔 聖痕 입을 뱉죽거리고 있다..”

‘장미씨 정오에 피어줄 수 있나요’의 시는 세련된 감각과 언어의 유희가 빛나는 작품이다. 토대가 단단한 젊은 시인의 앞날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 기교만이 아니라 시인의 내면에 자리한 시대정신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광주’라는 작품은 대표적인 시다.

“꽃밭의 역사가 잘못 읽혀 북(꽃)이라 불렀다./ 알싸한 오기를 할자 입안을 감도는 오월 피맛”
두 행의 짧은 시는 폼페이되고 왜곡된 광주 오월을 특유의 짧은 시각으로 성찰한다. 깊은 성찰과 언어적 감각이 없이는 형상화할 수 없는 작품이다.

최류빈 시인은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는, 일상적이지만 일상적이지 않는 시선을 견지하고 싶다”며 “일상과 예술의 간극을 저만의 언어로 형상화한 시를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큐 ‘마리안느와 마가렛’ 고향 오스트리아서 상영

인스부르크 국제영화제 초청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43년 간 봉사한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가 그들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티롤주 인스부르크에서 상영된다.

6월 3일까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인스부르크 국제 영화제(International Filmfestival Innsbruck, IFFI)에 다큐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특별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인스부르크 국제영화제는 1992년 시작됐으며 라틴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및 동유럽권의 장편 영화와 단편영화(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영화제다.

영화는 오는 6월 3일 오후 3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Leokino 2 극장에서 당일 첫 번째 작품으로 상영된다.

또한 6월 5일에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졸업한 AZW-Training Center West for health professionals 간호대학의 재학생 및 학교 관계



마리안느(왼쪽)와 마가렛

자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이번 초청행사에서는 영화 상영 후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윤세영 감독이 직접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영화는 소록도성당 김연준 신부가 기획·제작했으며 고흥군과 전남도의 제작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4월 20일에 개봉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38년 지나도 잊히지 않는 오월의 그리움



극단 Y의 연극 ‘금복음악다방’ 연습 모습.

6월1~6일 연극 ‘금복음악다방’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끌려간 남녀의 엇갈린 인연을 소재로 한 공연 ‘금복음악다방’이 무대에 오른다. 6월1일~6일 평일 오후 5시·8시, 토·일요일·공휴일 오후 3시·6시 예연소극장.

극단 Y는 최근 광주문화재단의 ‘2018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에 선정돼 창작희곡 ‘금복음악다방’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대학로의 인기 DJ였던 ‘강민’과 ‘선주’라는 인물을 통해 그 시대의 음악다방의 풍경과 젊은이들의 사랑을 보여준다. 현재 정년 퇴직한 베이비부머세대 위한 현정공연이기도 하다.

전남대 후문 맞은편 건물 지하에 30년 넘게 음악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여사장은 치솟는 임대료와 밀린 집세 때문에 건물주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 음악다방은 한때 인기 있는 DJ와 통기타가수, 팝음악 때문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밀려들었지만 지금은 분위기 좋은 전문

커피숍에 밀려 손님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30년 넘게 팝음악전문다방을 고집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여사장은 마지막으로 파티를 하기로 제안하고, TV방송국에서 리포터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민주’는 방송에 내 불 만한 소재라고 이야기한다. 방송녹화가 시작되고 주방장의 입을 통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밝혀진다.

이번 작품은 오랫동안 연기활동을 해왔던 박규상 예술감독의 첫 창작희곡으로 그 당시 활동했던 DJ와 통기타 가수들이 특별출연한다.

연출은 최영화 호남대 미디어영상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배우 송정우, 조혜수, 최용규, 정은지, 이현기, 진소현, 김주열 등이 무대에 오른다. 박준, 주광, 박용수, 김석, 김정아씨 등이 DJ로 출연한다.

또 오영목, 배창희, 한중면, 여근수, 조승우, 박예찬씨 등이 특별 출연해 통기타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 010-2684-599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오월창작가요제 대상곡 정밀아 ‘무명’ 선정

올해로 8번째 열린 전국 오월창작가요제의 대상곡으로 정밀아의 ‘무명(無名)’이 선정됐다.

제8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는 지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03곡의 창작곡을 접수 받아 1, 2차 예선을 통해 최종 10개 팀을 선정, 5·18최후항쟁지구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에서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

이번 경연에서 대상은 정밀아의 ‘무명(無名)’이 차지했으며, 트로피와 함께 창작자원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정밀아의 곡 ‘무명(無名)’은 수많은 이름 없는 존재들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로 본선 경연에서는 클래식 기타 2대와 하모니카 사운드까지 잘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금상은 5월의 아픈 봄, 이름 없이 쓰러져 간 모든 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레코드벨의 ‘인사’가 받았고, 은상은 비버타운의 ‘그곳으로’, 동상은 퓨전국악 팀 울담의 ‘수저타령’이 차지했다.

한편 본선에 입상한 10곡은 이후 실황 음반 발매 작업을 거쳐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되며 후속 공연 등이 있을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정밀아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